

21년 하반기 산학 포럼 제 3회 자료집

본 저작권의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으며, 학술적 용도에 한하여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공연과 축제

이영민

문화유산 활용 공연과 축제

문화유산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



문화유산 관련 축제

제2회 2021세계유산축전

주최 : 문화재청 / 주관 : 한국문화재단

국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대로 각종
전통공연, 체험 및 재현행사 등 문화재 활용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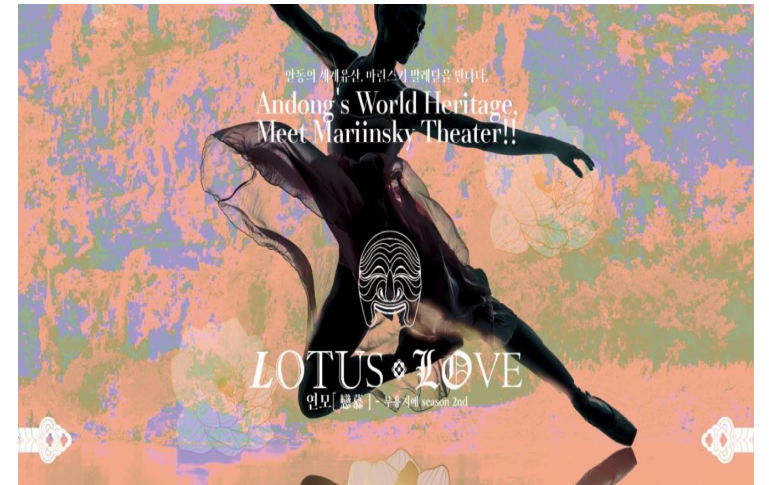


<https://worldheritage.modoo.at/>

문화유산 관련 축제 2021 세계유산축전

백제, 안동, 수원, 제주

04



* 2021년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8.13.~29.

“찬란한 유산, AGAIN(어게인) 백제로”
정보통신기술 (ICT)와 결합한 주제공연, 드론 불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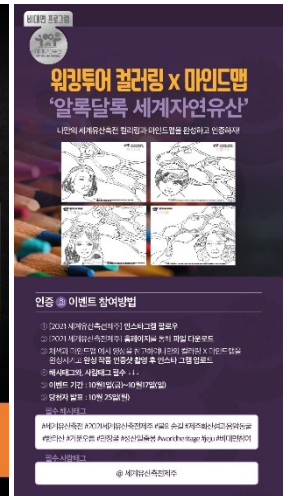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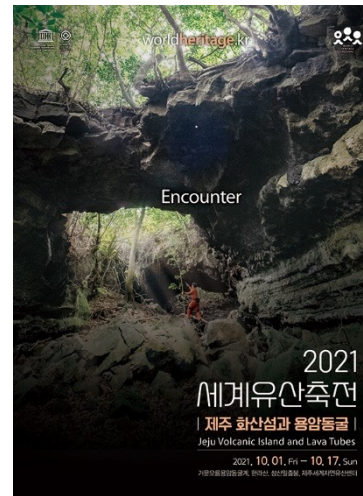
* 2021년 세계유산축전-안동: 9.4.~ 26.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 음악회 ‘도산 12곡’,
병산서원에서의 3일, 무용극(Lotus Love)(로투스 러브)

문화유산 관련 축제 2021 세계유산축전

백제, 안동, 수원, 제주

05



* 2021년 세계유산축전-수원 화성: 9.18.~10.10.

“수원화성에 깃든 효와 실용의 가치, 인간존중과 미적 가치”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연계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 2021년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0.1.~17.

“제주의 숨겨진 자연과의 조우(Encounter)”

‘워킹 투어’와 ‘아트 프로젝트’ 그리고 ‘유산마을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

행사로 진행.

문화유산 관련 축제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전주)

주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주관 : 한국문화재단
전통문화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한 우리나라 대표 무형문화재 축제. 공연, 전시, 시연, 체험 등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오리지널 케이컬쳐 이야기 OK, 무형유산”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 작품 95종 180점 전시

*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체험

* 공연 : 판소리, 남사당 놀이, 줄타기, 농악의 합동공연 '수직상체일기'

상생 판굿 '무형유산 고티로 통(通)하다.', 판소리 5마당 '오, 케이 판소리' '춤추는 바람꽃', '굿GOOD 보러가자' 등등



전시 _ 투어코스 (1)

1. 보유자 작품전

기간 | 2021.10.8.(금) ~ 10.17.(일) 10:00 ~ 17:00, 1일 6회 예약제 인원제한 운영

* 매주 월요일 휴관

* 10.8.(금) 6회차(17:00 ~ 17:45)만 운영

장소 | 누리마루 1~2층 전시장 및 로비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작품 95종 180점 전시

문의 | 한국문화재단 공예진흥팀 (02-3011-2162)

컨셉 "기량의 정취가 머무는 장인의 숨결"

1973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은 우리 전승 공예품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전시로,

본 전시를 통해 전승공예의 지평을 넓히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다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ZONE 1. 가치가 빛어내는 기량의 온기

성유, 피모, 죽초의 크고 작은 수많은 선이 직조와 짜임으로 발형되어 기물로 형성된다. 장인의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숙련된 정교함과 섬세한 시간의 흐름이 만나 순수한 사물의 가치와 미학이 담긴 오브제가 되어 그 필요함을 드러낸다.

ZONE 2. 소리를 품은 전통의 온기

정제된 색감과 형태 속에서 축적된 악기 장인의 기량이 작품이 되어 전달된다. 중첩된 울림과 소리의 흔적은 음계(音階)가 되어 공연된 위에서 울림의 맥을 이어간다.

ZONE 3. 전통을 잇고 세상을 품은 조형의 온기

목질, 금속, 도자, 불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된 자연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힘의 균형이 집중된 장인의 손끝에서 수 천 번의 두드림과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커져서 쌓인 전통 기술과 결합하여진다. 간결한 형태와 정제된 색감은 조형 언어로 빛어지고, 춤과 물, 그리고 불에 의해 제화된 작품의 언어들은 흐름의 결과 값으로 전달된다.

<https://mhdj2021.modoo.at/>

문화유산 관련 축제

2020

온라인 서울무형문화축제

-서울시&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눈에-

주최 : 서울특별시, 이북5도위원회
서울지역의 무형문화재와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함께 선보이는 행사.



- * 예능 및 기능 분야 52개 종목, 다채로운 무형문화재를 한눈에
- * 서울 무형문화재 36개 종목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16개 종목이 소개.
- * 예능분야(연주, 춤, 놀이) : 판소리, 초적, 송파다리밟기, 장안편사놀이
- * 기능분야(공예품, 음식) : 자수장, 은공장, 삼해약주장 등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 * 황해도 배뱅이굿, 만긋대탁긋, 돈돌놀이 등 이북5도 무형문화재 공연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문화재 야행(夜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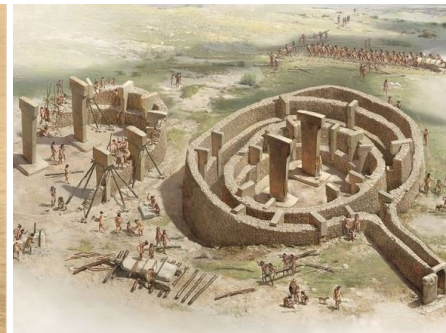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집적,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관람(개방),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도심형 야간축제 이벤트이다.



*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포함)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문화재 야행(夜行)

해외 유사 사례

- ▲ 198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던 'Night of the Arts'를 시작으로 유럽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Stockman, 2018)
- ▲ 2001년부터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종교 및 문화유산장소, 역사적 건물 등을 야간에 개방해 문화유산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약 144억 원의 입장권 판매와 주변 상가의 야간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Culture 24, 2018)
- ▲ 국내에서는 '정동 야행'이 2015년 시작해 방향성과 확장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덕수궁과 주변의 역사문화시설을 밤 10시까지 개방해 공연예술과 함께 정동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향유 하게 하는 야간도심형 축제 콘텐츠이다. (이호정, 2018)



문화유산 관련 축제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문화재 야행(夜行)

문화재 야행의 목적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콘텐츠 가치 확산 및 관심 증폭
- ▲ 서울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적 축제 기획으로 총체적인 한류 확산에 기여
- ▲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 쇼핑 중심 관광 형태에서 역사문화관광으로 전환
- ▲ 대규모 관광객 유치산업인 MICE에 대비하고 문화재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재 관광 요구에 부응



2016년부터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활용법 제시

(김정배, 전주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의 현황과 추진전략_참조)

*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며, 관람객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 (박동석, 2017)



▲ 야간 축제는 빛과 등(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간 축제와 차별화 된다.

- 야간 축제는 빛을 활용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분위기와 정취를 연출한다.

- 주간에는 찾지 않던 관광객을 야간에 찾게 한다. (참고 사진 :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경주 월지 야행)

▲ 국가 경제 상황이 호전될수록 사람들의 여가는 늘어나고, 야간 활동 시간이 확보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하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 관광 콘텐츠 측면에서 ‘야간’ 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공간적 특성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된다.

(국내외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 우리 조상들의 생활관습과 시대사상을 체험 콘텐츠를 매개로 더욱 친숙하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참된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

▲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해석하고 활용한 유·무형 문화유산 개발의 이점

(정치, 사상, 종교, 사회, 문화적 갈등과 변화, 대립, 진실과 기만의 사건이 많았던 한국 근대사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해야 하는 점점)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야행” 8 夜

특성 : 지역별 특화된 문화체험의 기회를 ‘야간’ 이라는 시공간에 재현

특징 : 문화재와 문화재의 결합 (건물, 서원, 장터 등)

문화재와 사람의 결합 (당대의 의식 복원한 의례 재현)

문화재와 장르의 결합 (공연, 문학, 예술, 음악 등)

문화재와 매체의 결합 (IT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매체와 결합)

* 27곳 모두 아래와 같이 8가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명확한 정체성 부여

#야행(夜行) 8야(夜)

1. 야경 (夜景)

2. 야로 (夜路)

3. 야사 (夜史)

4. 야화 (夜畵)

5. 야설 (夜說)

6. 야식 (夜食)

7. 야숙 (夜宿)

8. 야시 (夜市)

#역사문화자원, 원도심, 문화콘텐츠, 관광객 등

문화재 야행 연관어 (빅데이터 분석)

문화재 활용 축제는 낙후된 도시를 살리거나 재생의 기능이 있다.

침체된 원도심의 근대 문화를 바탕으로 행사를 진행해 죽은 상권을 회복하고, 옛 건물과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개축하여 공연무대로 사용하고, 근대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상점이나 식당으로 바꾸었다. 행사 이후에도 시설이 유지되면서 그 도시의 핫플레이스로 상권 활성화를 촉진 시켰다. 공공 시설이었던 공간을 미술관으로 변모시켜 문화 배움을 제공하는 등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문화재 활용을 실현하고 있다. (이슬기 외, 2016)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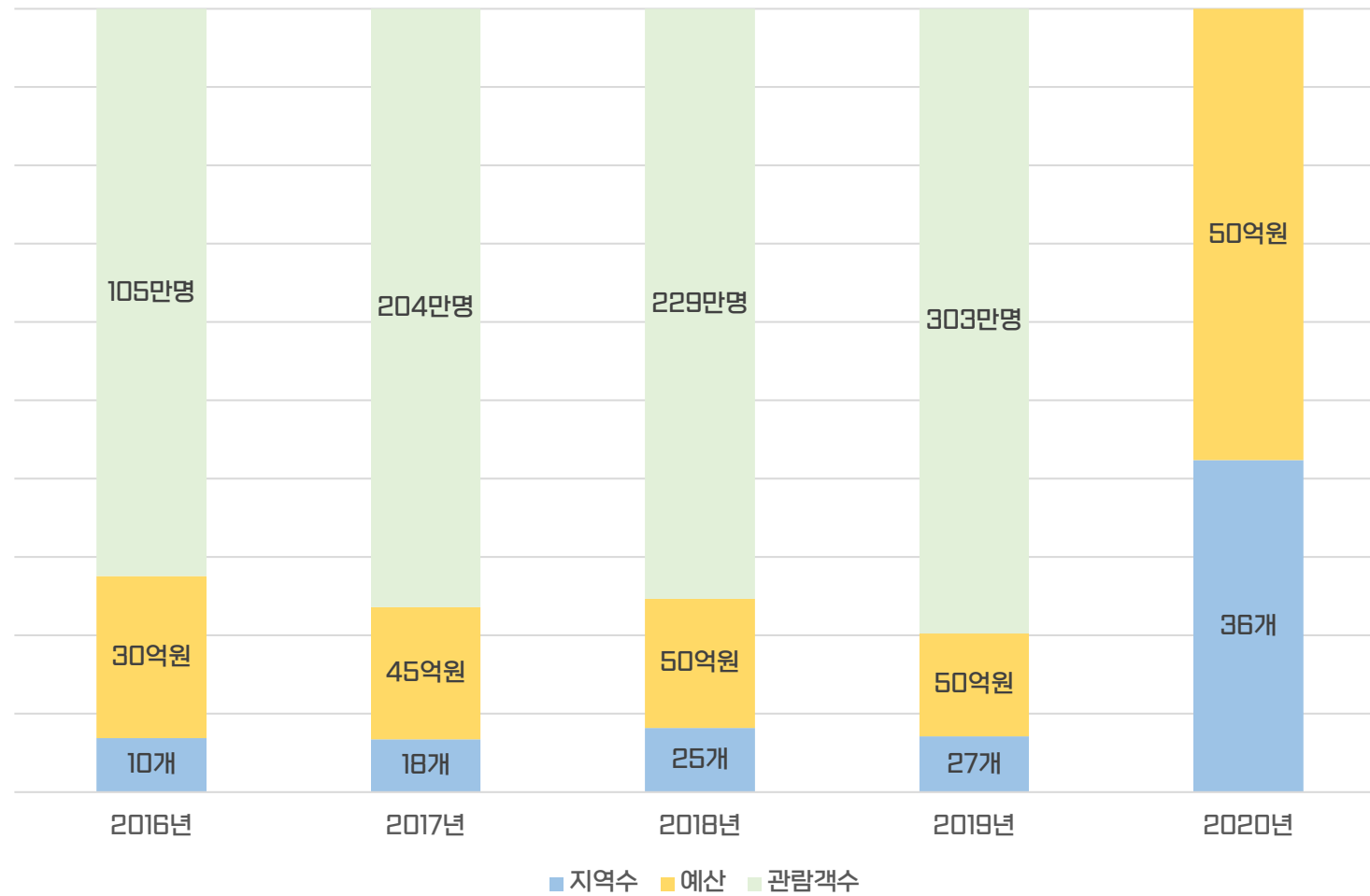
국가등록문화재 제374호, 일제강점기 시대, 2008-07-03지정
소재지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14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제726호, 일제강점기 시대, 2018-08-06지정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구영신창길 22

문화재 야행 사업 연도별 예산 및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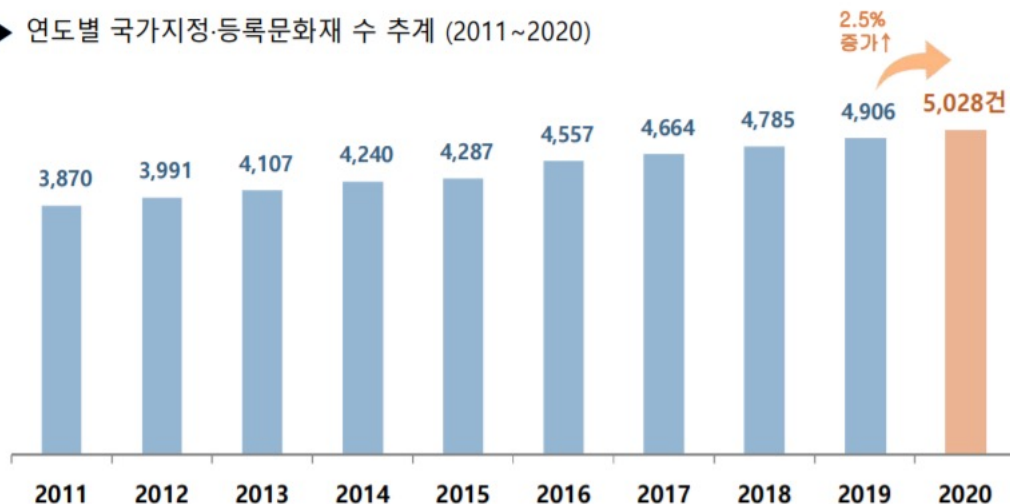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화재 수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 포함 13,000여 가지 전국에 산재(문화재청, 2018)

연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 2020년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134건이 신규 지정·등록, 12건이 지정해제·등록해제된 총 5,028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연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수 추계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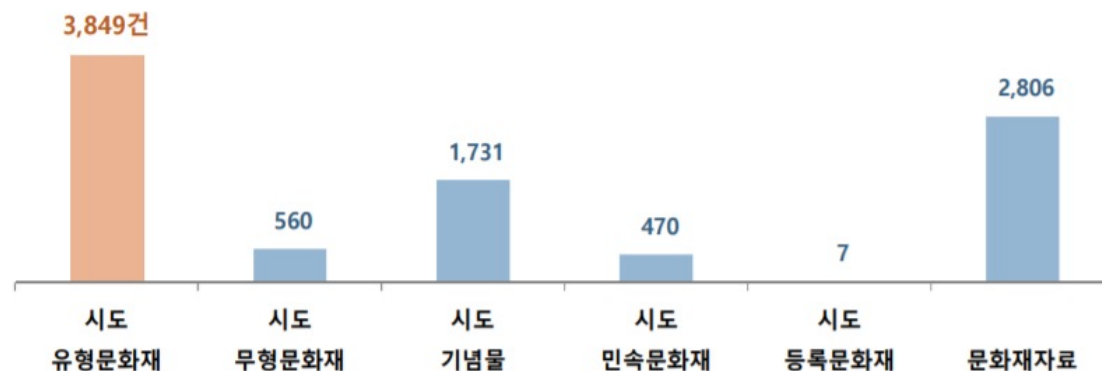
※ 2016.1.1.부터 지정번호 집계방식으로 변경되어 부번호도 포함하여 산정함

자료출처 :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지정문화재 관리대장

종목별 시·도문화재 현황

- 2020년 시·도 지정·등록문화재 총 6,617건 중 유형문화재가 4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19.11.26. 문화재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7건의 시·도등록문화재를 신규 등록하였음

▶ 종목별 시·도문화재 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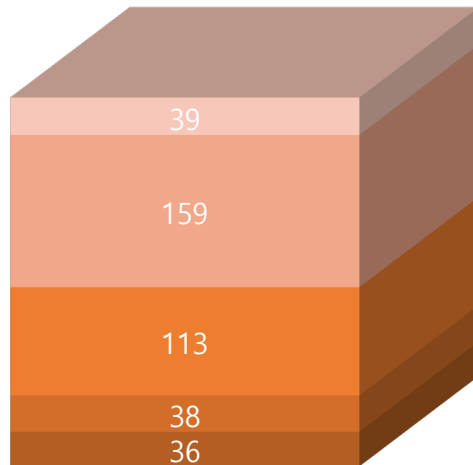


자료출처 :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지정문화재 관리대장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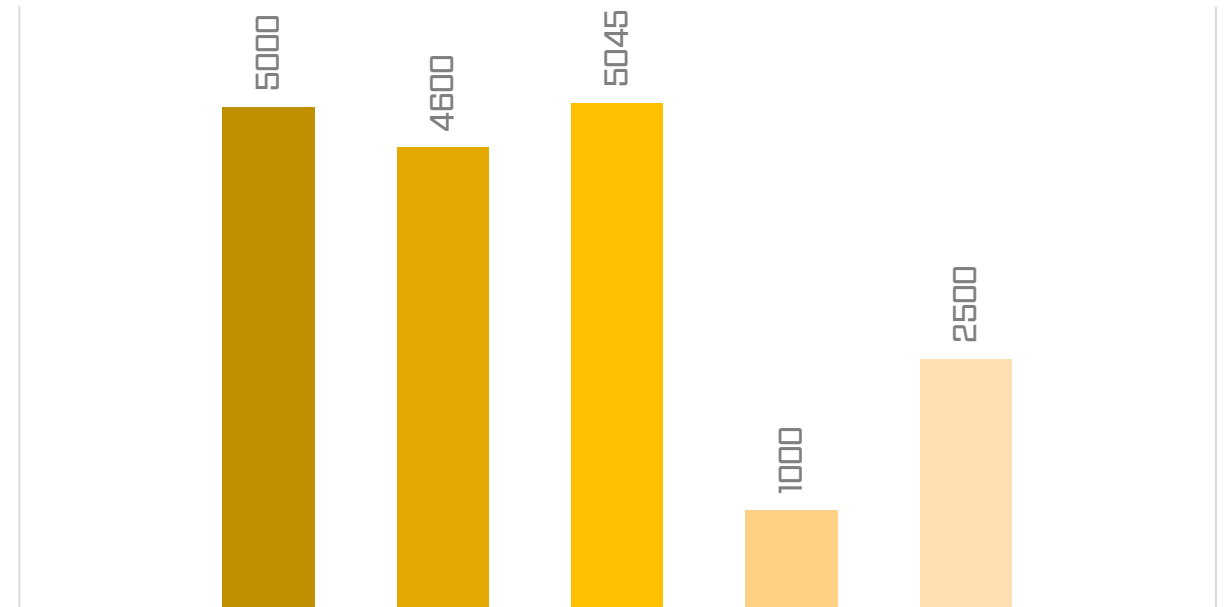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지원 현황

- 문화재야행
- 전통산사문화재
- 향교서원
- 생생문화재
- 고택/종갓집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예산 현황

- 문화재야행
- 전통산사문화재
- 향교서원
- 생생문화재
- 고택/종 집



#문화재 야행

전주 문화재야행 '문화재 술사의 8(八) 야심작'



빛의 술사들
Night Scene



문화재 술사들
Night Street



이야기 술사들
Night History



그림 술사들
Night Picture



공연 술사들
Night Performance



음식 술사들
Night Meal



여행 술사들
Night Sleep



흥정 술사들
Night Market

프로그램 컨셉 '술사'는 재주 '術' 스승 '師'

선조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지가 꼭 도술을 부린 것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경륜과 패기가 결합한 거대한 밤의 시간여행)

#문화재 야행

강릉 문화재야행_강릉 대도호부



〈목적〉

1. 강릉의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야행프로그램의 기획과 이를 활용한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으로 구축
2.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강릉시민들이 문화재 야행의 주체로 활동하여 향토문화 진흥과 현대적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문화재 가치를 발굴하는 계기 마련

#문화재 야행

문화재 야행의 개선 방향

문화재 야행 사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향유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문화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 측면보다도 관광에 초점을 두다 보니 질적 하락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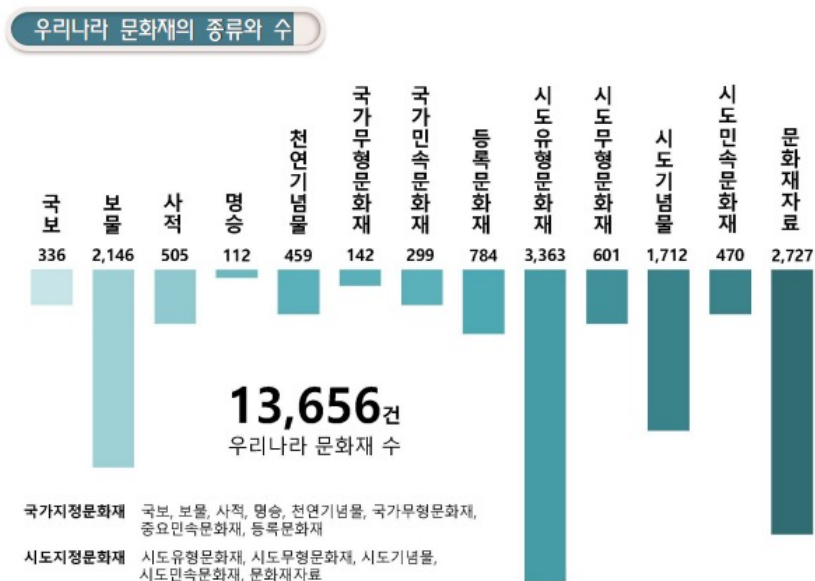
문화재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는 가치 중심 활용 전략이 필요



1. 1962년 문화재보호법 도입 이후 무형문화유산 (2019년 1월 기준)

* 지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138건, 시도 지정무형문화재 576건)

전라남도 (국가무형문화재 17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1건)



(2018년 02월 기준)

출처 :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8)

1-2-1. 시·도문화재 현황

통계표

(2020.12.31.기준) (단위: 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 유형문화재	439	202	84	69	31	57	36	17	308	172	344	202	245	239	477	890	37	3,849
시도 무형문화재	51	25	17	29	20	24	6	3	58	31	27	52	60	47	47	40	23	560
시도 기념물	40	51	18	64	24	47	46	11	185	79	138	163	122	193	155	267	128	1,731
시도 민속문화재	34	19	4	2	9	2	1	-	14	4	20	28	34	42	154	21	82	470
소계	564	297	123	164	84	130	89	31	565	286	529	445	461	521	833	1,218	270	6,610
시도 등록문화재	7	-	-	-	-	-	-	-	-	-	-	-	-	-	-	-	-	7
총계	571	297	123	164	84	130	89	31	565	286	529	445	461	521	833	1,218	270	6,617

※ 2016.1.1.부터 지정번호 집계방식 변경되어 부번호도 포함하여 산정함

(2020년 12월 기준)

출처 :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포럼 발제 – 김희태, 2019.01.30

전남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2. 전라남도 (국가무형문화재 17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1건)

*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 7종목 : 놀이 (강강술래), 축제 (법성포단오제), 음악 (구례잔수농악, 남도들노래, 구례향제줄풍류), 연희 (진도다시래기), 민간신앙의례 (진도씻김굿)

기능 – 10종목 : 공예 (나주의삿골나이, 곡성의돌실나이, 채상장, 장도장, 옹기장, 소반장, 옥장, 염색장), 건축 (제와장), 미술 (낙죽장)



강강술래(전라남도 진도군)



법성포단오제(전라남도 영광군)



구례잔수농악(전라남도 구례군)



남도들노래(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다시래기(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씻김굿(전라남도 진도군)



나주삿골나이(전라남도 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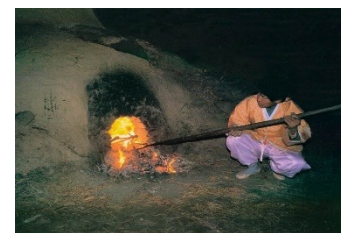
채상장(전라남도 담양군)



장도장(전라남도)



옥장(전라남도 목포시)



제와장(전라남도 장흥군)



낙죽장(전라남도 보성군)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포럼 발제 – 김희태, 2019.01.30

전남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2. 전라남도 (국가무형문화재 17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1건)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예능 35종목, 기능 16종목)

축제 3종목, 음악 27종목, 연희 2종목, 민간신앙의례 3종목, 식생활 3종목, 공예 11종목, 미술 2종목

□ 음악이 27종목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196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남도문화제 (전남민속예술축전)가 근원이다.



거문도벚노래(전라남도 여수시)



보성 강하주(전라남도 보성군)



완도 장좌리 당제와 당굿(전라남도 완도군)



우수영부녀농요(전라남도 해남군)

전남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3. 전승 활동

①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 ② 전수장학생 ③ 이수자 ④ 전수교육조교

◆개선책 마련

1. 해당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놓여준 노력화로 인해 전수 장학생을 현장에서 찾기 어려움. (연령 제한이라는 문제점 해결 필요)
2. 부업도 어려운데 전업은 꿈도 못꿈. (전승보조금 증액과 전수 장학생 기간 단축, 기예능의 원형과 전형의 전수라는 법규와 규정 논의 필요)
3. 전승보조금 지원과 함께 무형문화재 공개사업 지원 (공예작품전시회, 공연 발표 – 도내 축제나 문화예술행사와 연계 필요)
4. 전승활동 공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 전남 14개 시군 24개소 건립, 진도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남무형문화재가 함께 활용)
5. 기록화 사업
 - 1995~1996년 당시 지정 종목을 대상으로 비디오, CD 작업
 - 2011~2017 전남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16종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문화재연구소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영상 및 책자 발간, 구술채록, 기증기탁 컬렉션 등 진행
 - 현재 진행중인 전남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향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과 연차적, 체계적 연계 필요.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포럼 발제 – 김희태, 2019.01.30

전남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실태

4. 문제의식

1. 아직 지정되지 않은 유산이나 미래의 무형 자산에 대해서 無관심.

-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의 개념 재정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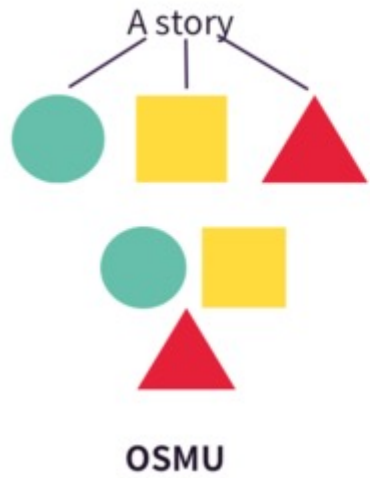
-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분야도 무형유산 자원에 포함해야 한다.

2. 인간문화재(보유자)분들의 요구사항

- 행정, 재정 지원의 현실화 (전수 활동 보조금 월 90만 원 / 서울 130만 원)

- 전수 체계 구축 (전수장학생과 이수자 기간 단축 필요)

3. 고령 보유자가 별세 한 경우 규정상 자격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오래전부터 전수해 오고 있었다면 보유자로 인정 후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OSMU &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텔링 활용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예술가이자 문화기획자로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의지 필요.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재, 명소 등 원천 소재를 활용 제2의 창작활동 전개

지난 10년간 기획 및 창작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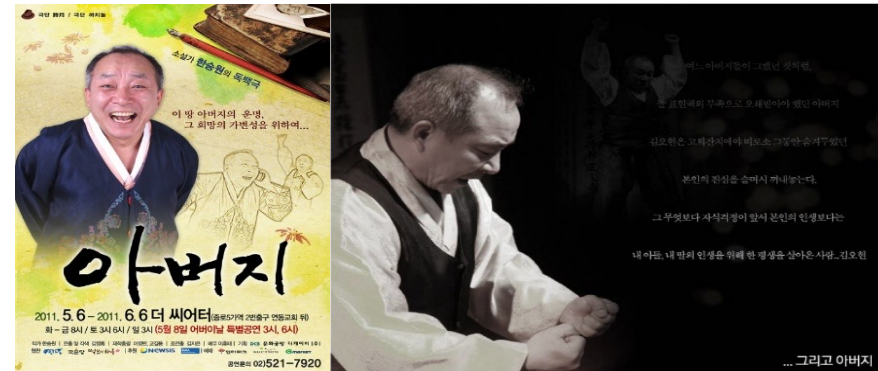
① 장흥 석대들 전적 (사적)

- 정남진장흥물축제 주제 프로그램에 접목



② 장흥 동학, 유치 빨치산, 대학 운동권

- 연극 '아버지'



③ 장흥 해동사

- 안중근 의사 순국일 행사



④ 장흥 정안사 공예태후(고려 인종의 비 공예태후 임씨)

3부작 - 연극 '공예태후'(장흥 지명), 연극 '표'(삼국유사)



지난 10년간 기획 및 창작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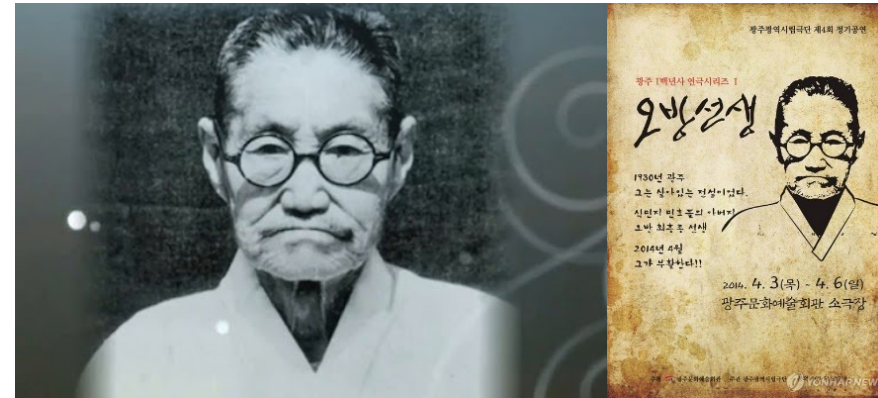
⑤ 광주 용아생가 (박용철 시문학)

- 연극 '나두야간다'



⑥ 오방 최흥종

- 연극 '지팡이'



⑦ 중국 현대음악의 3대 악성으로 추앙받는 '정율성'

- '정율성 음악제'



⑧ 담양 관방제림 & 삼지천마을 담장

- 담양지명 천년기념 연극 '쌀 엿 잘 만드는 집'



지난 10년간 기획 및 창작에 활용

⑨ 나주 금성관

- '의병의 날' 기념행사



⑩ 나주역사(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 뮤지컬 '어느 11월'



⑪ 나주 인물 - 작곡가 안성현 부용산

- 연극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 안성현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2021 문화의 달

대한민국 문화의 달 50주년 - 충남

— ‘2021 문화의 달’ 행사는 1972년 10월, 첫 행사 이후 50주년을 맞는 해

*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해 제정된 행사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50주년을 이어온 지금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행사가 됨.



50
50th Anniversary
of Culture Month

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Culture Month of
CHUNGNAM

우리는 은하수로 가는 문화전령사
땅의 별들이 모여 별별 신나는 날로 만들어가는 문화의 달

10. 15(금) - 10. 17(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홈예공원 일원

10. 15 가을에 찾아온 내포 해(太陽)의 날 한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청소년 역사교실, 문화전령 지식들의 인문학콘서트>

10. 16 은하수에 띄우는 내포 별(星)의 날 하늘과 땅의 별들이 별(星)의 날을 함께 축하하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50주년 기념식, 미디어아트 융합 공연, 동천상설차분아리도, 지역문화대상 시상식>

10. 17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내포 달(月)의 날 문화의 달 50주년으로 뜨겁게 자오르는 충남
<내포 K-POP Youth Festa, 문화 전령의 훈, 충남 출고제 완소리 공연 등>

대한민국 문화의 달은 안전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프로그램 별 변동이 있으므로 참여자분들께선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주관 2021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충남문화재단
2021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사무국: 041-338-9421-2 <http://culturemoon.or.kr>

〈충남 내포 문화 – 가야산 주변 명당〉 용봉산 아래

충청남도는 찬란한 백제의 유산을 품고 뿌리 깊은 정신문화가 담긴 곳입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학자, 예술가, 애국지사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예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다양한 문화유산들로 가득합니다.

- 백제 유산

- 충남의 역사 인물 : 최영,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맹사성, 윤봉길, 이지함, 김
정희, 안건, 효자 향덕, 김종서, 류방택 등,

- 무형문화재 : 서천 공작부채, 한산 세모시, 설위설경

역사와

#문화의 달 행사

컨셉과 주제 설정, 슬로건 도출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www/relic/RelicView.do?mcsgbnc=PS01003026001&mcseqno1=002674&mcseqno2=00000&cdLanguage=K>
QR#layer_download

-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는 10월 문화의 달

: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에 담긴 뿌리문화를 바탕으로 ‘한(韓) 문화’의 재발견 재평가 재창조의 계기를 마련하는 축전을 기획

- 천상열차분야지도 : 태조 4년(1395) 석각본 – 국보 228호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각석한 천문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새김.)

: 3원(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28수(동방청룡 7수, 남방주작 7수, 서방백호 7수, 북방현무 7수) 별자리와 1467개의 별을 그린 그림.

: 삼광 해, 별, 달을 컨셉으로 우리의 천문, 역사, 문학, 철학이 새롭게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문화의 달 50주년으로 기획

: 슬로건 “우리는 은하수로 가는 문화전령사”

만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천상열차분야지도



주제공연 新 천상열차분야지도

: 류방택 – 고려의 충신, 조선의 신하? / 공주시 계룡산 삼은각(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의 위패를 모신 건물, 초혼제를 지냄

: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별을 관찰하고 별자리를 기록했다. 천년의 세월이 별자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고구려 천문도를 따라 새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별의 밝기까지 구분한 우리의 천문기술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뛰어났다.

: 하늘의 모습을 담고, 그것을 형상화하여 차례대로 배열한 이 천문석각은 하늘의 형상을 땅에도 적용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 + 충남의 무형문화재 + 연극 + 미디어아트 융합공연

: 이 나라 이 땅의 문화! 삶이 묻어나는 백성들의 몸짓이 바로 별이다.



#충남의 무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14호 ‘한산모시’ 〈전통예술단 혼 – 모시꽃 피다〉

충남무형문화재 제1호 (2011. 11. 28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발 하나에 한필이 들어간다고 할 만큼 가늘고 고운데다가 법기가 잠자리 날개 같다고 함.
:가곡 ‘그네’ -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씨실과 날실, 그리고 여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만들어낸 삶의 흔적이자, 빛나는 우리 문화다.

#충남의 무형문화재

2. 충남무형문화재 21호 '서천 부채장'

〈전통예술단 혼 – 공작부채춤〉

바람판과 자루로만 이루어진 공작부채로 격조 높은 풍류와 화려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작품.





#충남의 무형문화재

3. 충남무형문화재 24호 ‘설위설경’ 〈전통예술단 혼 – 설위설경〉

충남 태안지역에서 전승 행해지는 굿청 장식과 경문 구송의 방식을 가리키고, 인간의 삶을 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정성드려 글자를 쓰거나 종이로 오린 여러 상징물로 단을 설치하고, 경을 외움으로써 불행을 퇴치하는 민간 전통



공연의 마무리

036

동양의 천문관이 집약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전 세계 석학들도 인정한 인류 최고의 천문도이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각석이 다시 발견되는데, 각석이 발견된 곳은 경복궁 관상감(왕립 천문대)의 흥경각이 아니라 창경궁 명정전 추녀 밑이었다.

거기서 평범한 돌덩어리로 풀밭에 내팽겨친 채 발에 밟히고, 소풍 온 시민들이 돛자리를 깔고 석각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뛰어놀며 모래장난을 했었다 한다.

이제라도 그 가치를 알고 위대한 조상들의 뜻을 기려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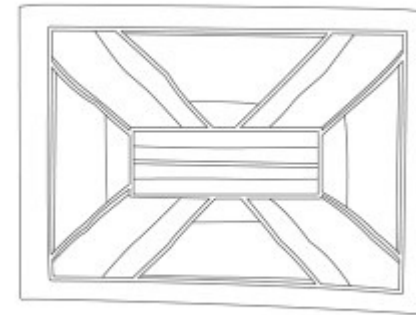
류방택이 기록한 1467개의 별. 60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별을 우리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에 눈을 맞추고 미래를 꿈꿔야 한다.



관상감



창경궁 명정전



창경궁 명정전 추녀



류방택 영정

마지막 메시지

037



류방택영정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듯, 이 땅에도 별들이 반짝인다.

사람이 별이고 별이 곧 사람이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건 크고 화려한 별 때문이 아니고,

이름 없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음이다.

그대들이 별이 될지어다.

그대들이 진정 천상의 별이 될지어다.



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50주년